

## 지난 주 말씀 요약 ( 7 / 8 )

제 목 :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말씀 : 이사야 30 : 1 ~ 5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것을 의지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 세력(이집트)을 의지하며 그 도움으로 살려고 했다. (이집트나 바벨론은 믿음의 세계와 반대인 세상세계를 뜻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고의로 반감을 가지고 거역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자식들이라 질책하며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것은, 한 마디로 세상 것을 의지하여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2절에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세상 지혜를 의지하여 잘 살려고 했다.** (2절 초)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며 지혜로워야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어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베푸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계획과 시작부터 진행 과정의 방법이며 완성해사에 필요한 제일 좋은 생각이 다 지혜이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혜롭지 못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이 있기에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지혜이다. 그렇기에 지혜의 근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 사용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인간의 꾀를 의지하고 악한 영의 술수에 의존해 나가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둘째, 인간적인 맹세를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 (2절 중)

이때 이스라엘은 약소국가로 자기들의 존립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했다. 약소민족으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대하시며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존중해 나갔다면

하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강대국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실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것들과 동맹을 맺고 그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사2:22)

**셋째,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했다.** (2절 중)

바로라는 세상 이집트의 왕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과 그 권세와 세력을 의지하여 강하게 살아보려고 했다. 세상 왕들의 권세도 대단하다. 심지어는 “공중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내노라 하던 세력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제 아무리 대단한 왕과 그 권세라 할지라도 몇 년, 혹은 몇 십 년으로 끝이 나고 만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왕권과 그 나라와 권세는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임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청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만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그 누구나, 가장 강하신 분 안에 있을 때 그는 강하게 된다.

**넷째, 이집트 그늘에 피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2절 하)

이 세상은 천재지변을 비롯하여 불행한 사건 사고와 인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때에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세상 곧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고 살려고 하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 천재든지 인재든지 불행한 사건 사고나 질병이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잠재우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천재나 인재를 모면해 보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

그래서 다윗은 천재나 인재나 삶의 고통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고, 요새로 삼고, 자기를 보호해줄 산성으로 삼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인간이 제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천재나 인재 앞에서 그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들인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할 때나 큰 소리를 치는 존재들이다.

현재도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에서 보호받고 이겨내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것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1 ( 새 찬송가 1. 42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이사야 29 장에서

○ 화 있을 것이다.

◎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 그 일을 어두운데서 행하며 말하기를

◎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라하니

○ 너희의 악함이 심히 크도다.

◎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주에게 대하여

◎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주에게 대하여

◎ 그가 총명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아 멘 -

찬 송 : 173 ( 새 찬송가 184 )

기 도 : 목 사 ( 다음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이사야 29 : 15 ~ 16 구약 999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하나님께 숨기려는 자는 화가 있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90 ( 새 찬송가 258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7 월 안내 ]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이미숙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박영수 집사 (다음 채현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마태복음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주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김 선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이해랑 권사 (다음 김 옥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0시 )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 1. 남 녀 전 도 회 월 례 모 임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남녀 각 전도회의 월례모임이 예전대로 각실에서 열립니다. 각 회원들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2. 어 린 이 여 름 성 경 학 교

7월 27일(금) 28일(토)은 "새날 학교"에서 주일은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16일\*(월) 17일\*(화) 밤8시부터 교육관에서 교사강습회가 열립니다. 교사들은 함께 하시고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성원을 간청합니다.

### 3. 중 고 청 년 부 여 름 수 려 회

7월 30일(월)에서 8월1일(수)까지 중고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담양수북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 4. 신 앙 성 장 프 로 그 램.

6교구 체크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했습니다.(약4:17)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 명숙 님 풍암동 주은모아 @

☺ 박 정인 님 풍암동 대주 @

☺

## 지난 주 말씀 요약 ( 7 / 15 )

제 목 : 하나님께 숨기려는 자는 화가 있다.

성경말씀 : 이사야 29 : 15 ~ 16

사람들은 무엇인가 숨기기를 좋아한다.  
또한 사람들끼리는 숨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기려는 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일을 숨기려 한다.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를 온전하게 신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상대에게 숨기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  
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인정한다  
면, 어찌 감히 그 하나님께 인간의 하는 일들을 숨기려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숨길 수도 없는 것을 숨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것이다.

**둘째, 욕심으로 하는 것이라 숨기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욕심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코 욕심으로 하는 일인데도, 정작 본인  
자신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은 욕심이 없  
는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비호한다. 그러나 진정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만 숨기려할 뿐이다.

**셋째, 의롭지 못한 것이라 숨기려 한다.**

언행심사를 의롭게 가지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스스로를 밝히려 한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자꾸 숨기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언행심사나 어떤 계획이 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으려 하고 비밀스럽게 진행시키려  
고 한다. 그러나 의로운 일이든 불의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러함에도 자꾸자꾸 숨기려 하며 불의한 일을 이루어 보려고  
계속하여 진행시키는 것은 화를 부르는 안타까운 일이다.

**넷째, 죄 된 것이라 숨기려 한다.**

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기에  
어찌하든지 숨기면서 죄 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죄 된 일들은 잘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면서 이루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며 포기하고 내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다섯째, 자기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숨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옛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 범죄 한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자기 이익을 찾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뚫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밝히 들어낼 수가 없기에 그것을 숨기고  
자신이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미화 시키고 포장하여 자랑을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속이려 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고 망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생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의 계획과 진행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좋은 일에도 기도하  
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교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노하시는 것이다.

**둘째,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계획과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계획과 진행이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합당치  
않고 어긋나기 때문에 감추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셋째, 사명과 은사를 안 받은 것처럼 숨기는 것이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시시하게 여겨 안 받은 것처럼 숨겨 논  
사람은 화를 받았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재능과  
어떤 실력들이 있는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주님 일에서 멀어  
진다. 크건 작건 받은 대로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복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 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31 ( 새 찬송가 2. 67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이사야 29 장에서

○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깨어지고

●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 그 아래 멸망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 교만과 악한 꾀는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 선한 말은 정결하여 복을 받느니라.

- 아 멘 -

찬 송 : 186 ( 새 찬송가 254 )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잠 언 15 : 21 ~ 26 구약 926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12 ( 새 찬송가 315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7 월 안내 ]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김철진 집사 (다음 김태용 집사)

기 도 : 채현숙 집사 (다음 조인경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유정숙 집사 (다음 김미숙 집사)

기 도 : 김 옥 권사 (다음 윤정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사사기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0시 )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7월 27일(금) 28일(토)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교사들은 말씀을 익히고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잘 보살펴서 다 함께 참여 시키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 2.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

7월 30일(월)에서 8월1일(수)까지

전남 호남 노회 중고청년부 연합 여름수련회가

담양 수북, 국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심령(心靈)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중, 고, 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앙성장 프로그램.

신앙성장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고  
자신이 복 받을 자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했습니다.(약4:17)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박 정인 님

풍암동 대주 @

☺ 이 정옥 님

풍암동 한국 @

☺ 정 제훈 님

풍암동 주택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지난 주 말씀 요약 ( 7 / 22 )

제 목 :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성경말씀 : 잠언 15 : 15 ~ 21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잠25:11) 등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과연 인생의 삶에서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어느 것인가 ?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때든지 그 때에 필요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와 어느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회로 애락의 때, 진퇴양난의 길이 막 막힌 때나 승승장구의 때에도 그에 필요한 적용할 수 있는 말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잘 되게 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때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으로 가다듬고 살피나가는 것이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상함이 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범죄 한 자에게 회개의 말씀을, 교만한 자에게 겸손의 말씀을,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 받을 말을 하는 것이다.

**둘째,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인생의 한 평생 삶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당한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나 사람의 심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를 더디 하고, 나쁜 일에는 원망불평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인생 삶의 어떤 역경이라도 원망불평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인생 삶의 그 어느 때든지 그 때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는 과정에서 길이 막히고 난관을 만나고 궁핍을 만나서 원망불평을 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원망할만한 환경과 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한 죄로 인해서 출애굽 한 20세 이상의 사람은,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 (고전 10:10-11)

그 어느 때든지 감사한 조건을 찾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말을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필요하며 합당한 말이며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다.

한 예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달 용돈을 주는데 다른 때보다 갑절을 주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말을 한다. 감사한 일에 감사한 말을 한 것이다.

한 번은 자녀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었다. 그런데 자녀가 기쁜 나빠하기는커녕 이번에도 부모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의 말을 한다.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가?! 감사한 말은 어느 때든지 아름다운 말이다.

**셋째,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를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엡4:29)

선한 말은 인생의 삶에서 그 어느 때든지 필요한 말이고 어느 때든지 그 때에 알맞은 합당한 말이며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이다. 악한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욕설을 하거나 미워하는 말은, 그 어느 때든지 허락된 것이 아니며, 금지해야 할 말들이고,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해로운 말들이다.

상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주와 욕설을 한다고 해도 나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름답고 복 받을 일이다.

**넷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완전히 부정적인 잘못 된 일도 없고, 완전히 잘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도 없다.

그 어떤 일든지 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부딪치면,

“못 한다” “실패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나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포기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일과 상황이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해 보자” “잘 될 것이다” “좋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분투노력을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면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나쁜 면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그 일들이 나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며,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시켜 나가면 그 일이 좋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통계나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하나님께서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며,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53 ( 새 찬송가 1. 9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사사기 7장에서

○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일백 명이 적군의 진에 이른즉

● 적군의 파수꾼이 교대할 때라

○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외쳐 말하기를

○ 여호와와 칼이여 ! 기도온의 칼이여 ! 하고

● 각기 그 자리에 서서 그 진 사면을 에워싸니

○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적군으로

○ 자기들 끼리 서로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 적군이 도망하고 기드온은 승전을 하였더라.

- 아 멘 -

찬 송 : 93 ( 새 찬송가 93 )

기 도 : 목 사 (다음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사기 7 : 15 ~ 23 구약 373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기드온의 승전 비결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02 ( 새 찬송가 445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8 월 안내 ]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김태용 집사 (다음 홍희석 집사)

기 도 : 김철진 집사 (다음 조인경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김미숙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김영님 집사 (다음 윤정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새벽 5시 )

인도 : 목사 (사사기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 전 9시, 본 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 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 전 10시 )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2.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

7월 30일(월)에서 8월1일(수)까지

전남 호남 노회 중고청년부 연합 여름수련회가

담양 수북, 국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심령(心靈)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좋은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중, 고, 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 3. 베드로 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베드로 남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헌신예배 후에는 이어서 베드로 남전도회에 기도 모임이

석정동 복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여 함께 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4. 금요기도회

8월 3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루디아 여전도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박 정인 님

풍암동 대주 @

☺ 이 정옥 님

풍암동 한국 @

☺ 정 제훈 님

풍암동 주택

## 지난 주 말씀 요약 ( 7 / 29 )

제 목 : 기드온의 승전 비결  
성경말씀 : 사사기 7 : 15 ~ 23

“사사”(士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족장시대를 이어, 왕과 비슷한 권세와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다스리던 직위였는데 “기드온”은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기드온 시대에 적국 미디안이 여러 부족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다.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니 총수가 3만2천명이다. 수십 수만의 적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은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니 전쟁 앞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다. 두려움에 떠는 자, 2만2천 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만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고 하셔서 9천7백 명을 돌려보내고 3백 명만 남았다. 그런데 이 3백 명이 수십 수만의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것이다.

기드온의 대승의 비결은 무엇일까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드온이 사람 편에서 준비하고 바로 하였으니,  
**첫째, 나팔을 준비하여 불었다.**  
삼백 명이 오른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순간에 다 같이 불었다.  
**둘째, 빈항아리를 준비 했다.**  
삼백 명이 빈항아리를 왼 손에 들고 다 같이 깨뜨려 부셨다.  
**셋째, 횃불을 밝혔다.**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서 왼 손에 들고 있다가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려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어 밝히며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함성을 지르고 또 삼백 명이 다 같이 나팔을 부니 그 광경이 장관이었다. 잠을 자다 깬 적군들은 갑자기 일어난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하여 우왕좌왕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혼란케 하시니, 미디안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칼을 들어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났다. 또한 적군들 서로 간에 불신이 깊어져 도망하다 짓밟혀 죽고, 살아서 도망간 자들은 얼마 안 되었다. 그러나 기드온과 삼백 명 용사들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고 죽음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 일은 지금부터 3천 3백 년 전에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미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함께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전쟁의 싸움은 아니한다하여도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싸움이기 때문에 이를 “생활전선”이라고까지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생활전선에서 싸워 이겨야 행복을 누리는데 기드온의 승전 비결이 곧 우리의 승전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생활전선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나팔을 준비하여 불어야 한다.**

기드온 당시는 실제로 나팔을 준비하여 불었는데 오늘날은 실제 나팔이 아닌 “복음 나팔을 불어라”는 뜻이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값을 완전히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용서받고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죽으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것이다. 입으로 나팔을 불듯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일을 열어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며, 멸망 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여겨 복음을 배척하지만, 구원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사죄와 천국 생명을 얻어서 인생의 삶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빈항아리를 깨뜨려 부셔야 한다.**

빈 항아리는 곧 질그릇이며 질그릇은 곧 우리 연약한 육체와 육체의 부패한 성질을 뜻한다. (창 2:7, 고후 4:6~7)

**셋째, 횃불을 밝혀야 한다.**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착한 행실을 뜻한다.(렘5:14, 마5:16) 즉 우리 육체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착한 행위를 실천할 능력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이, 빈항아리 즉 육체의 부패한 성질, 욕심, 자존심, 이기심, 잘못된 습관, 고집, 잘못된 사상, 풍습 등에 가로막혀 좋은 행위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고집, 잘못된 사상과 풍습 등을 깨뜨려 부수고 벗어나야 하며, 그 때에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착한 행위들이 밖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보여 지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시고,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믿음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우리는 삶에 생활전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삶에 생활전선에서 승리를 해야 얻는 것이 있고, 승리를 해야 누리는 것이 있고, 승리를 해야 믿음과 영이 자라나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 찬란한 상급을 받게 된다. 빈항아리를 깨뜨려 부수고 횃불을 높이 밝혀야 한다.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29 ( 새 찬송가 2. 29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고린도전서 9장에서

○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 하라

◎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힘을 쓰되

◎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힘쓰는 것이라

○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방향 없이 아니하고

◎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 내가 내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게 함은

◎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 아 멘 -

찬 송 : 486 ( 새 찬송가 368 )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고린도전서 9 : 24 ~ 27 신약 274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면류관을 얻도록 너희도 달음질 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13 ( 새 찬송가 524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8 월 안내 ]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홍희석 집사 (다음 박종복 집사)

기 도 : 조인경 집사 (다음 이춘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이성숙 집사)

기 도 : 윤정희 집사 (다음 강복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사사기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0시 )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월례제직모임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8월 월례 제직모임이 있습니다.

### 2. 중 고 청 년 부 여 름 수 련 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워

30 배, 60 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후원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늘에 은총을 기원합니다.

### 3. 금 요 기 도 회

8월 10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에스더 여전도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4. 사 경 회 안 내

8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경기도 제일기도원에서 이병규 목사님의 성경강좌 사경회가 열립니다.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박 정인 님

풍암동 대주 @

☺ 이 정옥 님

풍암동 한국 @

☺ 정 제훈 님

풍암동 주택

## 지난 주 말씀 요약 ( 8 / 5 )

제 목 : 면류관을 얻도록 너희도 달음질 하라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9 : 24 ~ 27

요즈음 런던 올림픽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그러나 올림픽의 시조는 오늘 본문말씀을 배경으로 한 헬라, 즉 그리스다. 최초에는 192m 쯤의 직선거리를 한 번 달리는 경기만 하다가 얼마 후에는 왕복 달리기로 경기가 열렸고 또 얼마 후에는 복싱이 추가 되었다가 시간이 가면서 레슬링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등 여러 종목이 추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당시의 달리기와 복싱에서의 우승자를 견주며 우리도 그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리기를 잘하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경기장에 선수로 뛰지 아니해도 우리 역시 인생 삶의 경주를 하고 있으며 이미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선 탈락을 하거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미 인생에 삶의 경기장에 들어선 이상 우리도 상을 받도록 뛰어야 한다. 올림픽에 나갔어도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과 메달을 딴 사람을 비교해 보라. 똑같이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그 결과와 대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상을 받고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목표 목적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한다.** (26절)

달리기에서 아무리 빨리 잘 달려도 결승점으로 달리지 않으면 상이 없고 헛수고다. 야구선수는 홈런이 목표이고 축구선수는 골인이 목표다. 골대와 골인은 불과 10cm 차이이지만 아무리 골대를 많이 맞혀도 그건 상이 없고 오히려 부끄럽게 되며 오직 골인을 시켜야만 점수가 있고 상이 있다.

이렇듯,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삶에 경주에서도 목표점 방향을 바로 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종착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의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막상 한 평생 삶을 살고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없고 받아 누릴 상이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한 삶의 경주는 모두가 헛된 것이며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된다.

**둘째, 절제를 해야 한다.** (25절)

이때 최고의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담장이 넝쿨을 동그랗게 해서 올리브 잎과 미나리과의 파슬리 식물의 잎을 엮어

만든 것으로 며칠만 지나도 말라 버리는 그런 것이다. 며칠이면 말라비틀어지고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절제하며 몰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면류관이며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인데,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욱 절제를 해야 마땅하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말과 행동과 마음 썸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절제해야 하며, 돈도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해서 사치나 방탕한데 쓰지 말고 꼭 써야 할 데 쓰고 절제해야 한다.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하고, 음식도 절제하여 몸 관리를 해야 하며,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경주를 하는데 유익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잘 살피서 절제하며 가다듬어야 한다.

**셋째, 법대로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영에 박태환선수가 출발신호 전에 발가락을 움직였다 해서 실격을 당해 문제가 일어났고, 경기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 했어도 상이 없고, 혹시 금메달을 받았다 하여도 다시 박탈당한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경주에서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제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어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 하여도 그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천국의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넷째,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 (27절)

인간에게는 부패한 성질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다. 이 부패한 기질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어도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 했다. 여기서 “버림 당 한다”는 뜻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리에서 자격 미달로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있고 활동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말씀대로 만들어 진 것이 없어서, 겉으로만 잘 믿는 것처럼 한 위선(偽善)이 드러나서 상 받을 자리에서 거절당한다는 것이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섰으면 서도, 막상 상 받을 자리에서는 거절당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인가 ? 이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서 자격을 만들고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46 ( 새 찬송가 1. 31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사사기 9 장에서

○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기를

○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의 귀에 말하라

◎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으냐?

◎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말을 세겜에 전하니

◎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말하기를

○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신전에서 온 70을 내어 주매

◎ 아비멜렉이 잡류를 사서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였더라. - 아 멘 -

찬 송 : 142 ( 새 찬송가 148 )

기 도 : 목 사 (다음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사기 9 : 1 ~ 6 구약 37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선동한 자와 선동 받은 자의 결국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97 ( 새 찬송가 357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익남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8 월 안내 ]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박종복 집사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이춘희 집사 (다음 최순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이성숙 집사 (다음 이성희 집사)

기 도 : 강복희 집사 (다음 박영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사사기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사 경 회 안 내

8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경기도 제일기도원에서

이병규 목사님의 성경강좌 사경회가 열립니다.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2. 금 요 기 도 회

8월 17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마리아 여전도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 정옥 님 풍암동 한국 @

☺ 정 제훈 님 풍암동 주택

☺ 이 지희 님 풍암동 삼능남양 @



## 지난 주 말씀 요약 ( 8 / 12 )

제 목 : 선동을 한 자와 선동 받은 자의 결국  
성경말씀 : 사사기 9 : 1 ~ 6

믿음의 용사요 훌륭한 사사인 기드온.  
그가 안타깝게도 부인을 여럿 두어 아들만 70여명이며,  
딸까지 하면 백여 명쯤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외조부와 외가의 형제들을 선동한다.  
“이스라엘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또한 아비멜렉 자신은 세겜 사람들의 골육지친이니  
아비멜렉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에 선동을 받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 모아두었던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자금으로 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에 힘을 얻은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불량한 무리들을 모아서, 기드온의 아들이며 자기 형제  
들인 70 명을 한 곳에 모으고 다 죽여 버렸고, 자기 자신은  
외갓집 세겜과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 곧 이스라엘  
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위의 일은 지금부터 3,300년 전의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정권에 욕심을 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와  
비슷한 선동을 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런 일에 많은 사람  
들이 선동을 받아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선동을 했는가?  
첫째, 혈연(血緣)에 기대어 선동했다.

자기 외갓집에 가서 자신은 외가와 세겜 사람들의 골육지친  
임을 내세워 선동을 했다. 이에 외가와 세겜 사람들은 그 선  
동의 진위나 의나 불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혈연의 관계라는  
것에 연연하여 악한 일에 선동을 받고 협력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일가다, 친척이다,  
종씨다, 하면서 그런 혈연에 기대어 선동을 하고 선동을 받는다.

둘째, 지연(地緣)에 기대어 선동했다.

아비멜렉 자기 어머니가 세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자신을 밀어줘야 한다고 선동을 했다.  
오늘날도, 고향이 같다. 동향이다. 같은 지방 출신이다. 하며  
지연에 기대어 선동을 하고, 또 그 지방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선동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  
각 지역민들 상호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라기보다 정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 야욕을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며 선동을 하였고  
지역민들은 이에 선동을 받아서 불화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 학연(學緣)에 기대어 선동을 한다.

오늘날 동문이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선후배다. 하면서  
학연에 기대어 선동을 하고 선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 그 진행하는 일이 합당치 못하고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싸주고 밀어주며 상호간에 도모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 거짓말을 지어 선동을 한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아버지 기드온의 명을 따라 권세를 멀리하고  
보통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짓말로  
선동을 한다. 마치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권세를 잡고 이스  
라엘을 다스려서 어지럽게 할 것처럼 ... 이에 선동을 받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합작하여 죄 없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선동을 받아 합작한 결과 아비멜렉은 왕  
이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공로로, 3년  
쯤은 혜택을 누리며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 악한 신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신케 하고 배반케 하여 아비멜렉이 자기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짝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게 되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서로 협력하여 정권을 잡고 혜택을 누렸  
지만, 좋은 세월은 3년쯤으로 끝이 나고, 서로가 죽이고 죽인  
끝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요즘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길을 가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선동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바로 되었는가? 정의로운가? 공공성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참모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덕성은  
깨끗한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눈여겨보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비멜렉처럼 정권을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감언이설로 선동을 하고 자신들을 미화한다.  
그들에 선동을 받아 합작을 한다면 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바로 분별하여 선택한다면 함께 번영할 것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 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55 ( 새 찬송가 2. 15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사사기 9 장에서

- 사무엘에 여호와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
- ◎ 성읍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여 말하기를
-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그대 평강을 위함이노라.
- ◎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고 그들을 청하니라
- ◎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도다. 하니
-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 신장을 보지 말라
-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 아 멘 -

찬 송 : 168 ( 새 찬송가 180 )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무엘상 16 : 1 ~ 7 구약 434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19 ( 새 찬송가 461 )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8 월 안내 ]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조상희 집사 (다음 이자연 집사)

기 도 : 최순덕 집사 (다음 이경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이성희 집사 (다음 최순희 집사)

기 도 : 이춘자 집사 (다음 박영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사사기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상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0시 )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월례 전도회 모임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남 여 각 전도회의 월례 모임이

예전대로 각 실에서 있습니다.

각각 해당 전도회에 참여하셔서, 믿음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2. 금요기도회

8월 24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한나 여전도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 정옥 님 풍암동 한국 @

☺ 정 제훈 님 풍암동 주택

☺ 이 지희 님 풍암동 삼능남양 @

## 지난 주 말씀 요약 ( 8 / 19 )

제 목 :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 사무엘상 16 : 1 ~ 7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으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만 위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기로 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까지 슬픔에 있겠느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사무엘 선지자가 슬픔을 접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인가 살펴보았다.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이 나오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흰칠한 키를 보고 감탄을 하며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하시며 중심이 바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은 외모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한다. 얼굴이 예쁘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키는 얼마나 되냐? 직장은 어디며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집은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외부적인 조건을 따라서 평가하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하고 역사를 하신다. 그 결과 이새의 여덟 아들 중 일곱이 다 불합격되고 막내둥이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이 왕으로 예선이 되어 기름부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첫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있었다.**

다윗은 이때 15세 쯤 되는 소년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언제나 살아 계시며 자기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 믿는 산 신앙이 있었다.

이 때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병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현실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를 아니했기에 적군의 대장 골리앗 앞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15살쯤의 소년인데도 자기 현실에서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여 나갔던 것이다.

**둘째,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가는 중심이 있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3m20이나 되는 거구요 용장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이 약하고 무능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있었기에 골리앗이나 죽음의 위험이나 그 어떤 역경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전진하며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역경과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중심이 있었다. (왕상 14:8)**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온 마음을 쏟아 바쳐 받들고 순종하여 나가는 중심이 있었다.

그 중심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환경이 변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과연 다윗은 장성하여 장군이 되고 왕이 되어 우리네보다 훨씬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언제나 우선으로 하고 제일로 존귀하게 여겨, 온 마음을 쏟아 바쳐서 받들고 순종해 나갔다.

**넷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중심이 있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져 하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지켜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양치기에도 저렇게 충성을 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더 충성하겠구나, 생각하시고 어린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을 하신 것이다.

사회나 직장 일이나 신앙의 일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알아 역사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

**다섯째, 잘못은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이 있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크고 작게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을 질책 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앞에 거꾸러져 회개하고 바로 섰다. 그 증거로 시편 6:6절에 “내가 탄식하므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기술 하였다.

잘못할 수도 있다. 감추려거나 합리화 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다윗의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중심으로 살자.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지난 주 말씀 요약 ( 8 / 26 )

제 목 : 삼손과 그 부모의 믿음  
성경말씀 : 사사기 13 : 15 ~ 25

“사사”는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과 같은 직위로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 BC. 1,400 ~ 1,000 년쯤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던 지도자들을 뜻한다. 그 중에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은 삼손에 관한 말씀이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도 회개할 생각도 않고 바로 설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셨다. 식민 지배 하에서 어언 40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지도자를 출생케 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삼손”이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결혼한 10여년 넘게 아이가 없었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를 확인하고자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마노아 부부의 믿음이 오늘 핵심 말씀이다.

마노아는  
첫째,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믿음이 있었다. (15절)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나그네요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 만나는 나그네, 그러나 마노아는 염소새끼로 음식을 만들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자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간청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접을 받기도 하고 남을 대접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나 상대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쾌히 대접을 하지만, 즉 자기가 대접하고서 그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을 때는 아까워하며 대접을 아니 하는 습관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대접을 하고서 그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할 사람에게 잘 대접하라 하셨다. 그에게서는 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셨다.

마노아 부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겸손히 인도를 잘 받는 믿음이 있었다. (16절)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호의를 베풀어 음식을 준비해서 잘 대접 해주고자 하는데 그 호의는 무참히 거절당하고, 오히려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충고를 받았다.

마노아 자신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처음 보는 나그네의 권고해 주는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자기 계획,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고, 그 나그네의 권고 그 인도와 가르침을 잘 받았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렸을 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천사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이는 마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증표이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고, 소제는 밀이나 보리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값을 지고 통째로 희생을 당하시고, 온 몸과 마음이 가루가 되기까지 희생하심을 뜻한 것이며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제사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지를 살펴보면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시간에 따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부터 정성으로 준비하여 참여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등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뜻을 모아, 자기 마음과 몸과 영과 예물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넷째,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 (23절)

처음 만난 나그네가 제사 중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줄을 알았다.

“아이쿠! 큰 일 났구나! 연약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했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의 지혜로 잘 대답 하여 남편 마노아의 근심을 덜고 평안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고 아들을 낳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노아 부부가 근심을 덜고 천사의 말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약속하셨던 아들을 얻었으니 곧 삼손이다.

삼손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서 압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 태평성대를 이뤘다.

마노아 부부가 천사를 대접한다 할 때, 천사는 대접을 안 받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권고했다. 이것이 천사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예수님을 빙자하여 명예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서 누린다. 모든 찬송과 영광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삼을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